

NEW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광주시-지역 대학, '교육 혁신' 힘 모은다



최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미래 성장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라고 했다.

회견은 약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 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세계양궁대회'서 계속

이번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3000여명도 본격 활동한다.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일반 시민, 대학생, 응원 리더가 질서 있는 응원을 펼친다.

서포터즈는 종목 특성에 맞는 응원으로 선수단 사기를 진작하고 관중과 함께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를 주도할 예정이다.

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대회 출전국가 선수들이 숙소 들어오면서 대회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며 "서포터즈와 함께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결승전은 7일부터 12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결승전은 27일과 28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RISE 비전 선포식 개최 5년간 65개 사업 추진

모빌리티·반도체·AI 연계 혁신인재 양성 등 본격화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이 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3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광주라이즈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17개 대학 합동 출범식으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각 대학 총장과 RISE사업단장,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지)·산업(산)·대학(학)·연구기관(연)의 협력을 통한 교육·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기정 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광주라이즈(RISE)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했으며, 두 사람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혁신과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7개 대학의 RISE 사업 소개 영상 상영과 함께 대학 라이즈사업단 대표로 구성된 '광주17개대학라이즈사업단협의회'의 비전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비전 선언문에는 광주형 지역혁신체계와 지식·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인재양성 사다리와 평생학습체계 확립, 산업혁신과 지역현안 해결,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역정주형 도시 만들기, 글

로벌 혁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광주의역사와 철학 계승 등이 담겼다.

중앙RISE위원회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의 'RISE에 대한 이해와 성과관리' 특별 강연, RISE 단위과제별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 등을 진행해 향후 과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다졌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4대 프로젝트, 14개 단위과제에 대해 17개 수행대학을 선정했다. 총 65개 세부사업 773억1000

만원 규모로 RISE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17개 대학은 2029년까지 5년간 RISE 사업을 통해 광주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와 연계해 석·박사 인력 1000명 배출, 창업기업 3만5000개 달성, 대학 졸업 후 지역 내에 취업하는 정주 취업을 40% 달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ISE 사업은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과 대학, 산업, 학생, 기업 재직자, 일

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지향하며, 광주형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광주시와 17개 대학은 함께 힘을 모아 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수급 불안' 마늘·양파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도, 주산지협의회 회의 걱정 재배면적 등 논의

전남도가 수급 불안정으로 재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마늘과 양파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3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육묘철을 맞아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마늘·양파 광역 주산지협의회 제 회의를 열어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산 마늘 중구 사용 등을 당부했다.

주산지협의회는 적정 재배면적과 생육 관리를 위해 기관별 관측·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마늘·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의사결정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의 주요 마늘·양파 주산지 시군과 생산자단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산 마늘·양파의 육묘철을 앞두고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8월호)에 따르면 2025년산 수확기 양파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6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3% 감



전남도는 3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육묘철을 맞아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마늘·양파 광역 주산지협의회 회의를 열어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소한 1만7247ha로 전망되는 만큼, 양파 육묘상 관리와 생육관리, 적정 양파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한 주산지별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남도는 중구 마늘 가격 하락으로 값싼 수입 중구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입 중구 사용을 근절하고, 국산 중구 사용을 장려하는 사단법인 마늘·양파수급관리위원회 주관 국산 중구 사용 캠페인을 함께 펼치는 등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마늘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수급안정,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사단법인 마늘·양파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마늘 재배 의향조사에 오는 12일까지 참여

를 당부했다.

마늘 재배 농가는 '마늘협회 자조금 통합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2026년산 마늘 재배 농지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마늘·양파수급관리위원회(044-868-6332)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마늘·양파 주산지협의회를 통해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 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겠다"며 "2026년산 마늘·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양파 육묘관리의 국내산 마늘 중구 사용, 마늘 재배의향 면적 신고 등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주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지원

오늘부터 DJ센터서·문체부와 행사 운영·편의 제공

광주시가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행사장 확보, 숙박·교통·맛집 등 편의 정보 제공, 공공대형전광판 및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 기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점을 활용해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지(G)-뮤지엄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Art-Heritage MICE)' 도시로서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마이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케이(K)-컬처 최일선의 박물관·미술관의 축제인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광

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올해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도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을 주제로 국내외의 145개 기관이 참여해 34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약 2만명의 관람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미디어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박물관의 비전도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유전(전국 박물관·미술관 홍보관), 특별전(디지털 실감형 전시, 지자체·산업 홍보), 학술세미나, 체험프로그램, 팬상품(굿즈) 판매관, 진로체험교육관 등으로 구성된다.

장승기 기자 sky@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IN Co.,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과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